

Title	はじめに(韓国語)
Author(s)	聖学院大学総合図書館
Citation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 No.55 別冊, 2013.3 : 9-13
URL	http://serve.seigakuin-univ.ac.jp/reps/modules/xoonips/detail.php?item_id=5013
Rights	



聖学院学術情報発信システム : SERVE

SEigakuin Repository and academic archiVE

서문

본 『기요별책』에 수록된 논문은 2010년도 부터 시작한 ‘한일관계 100년 <1910-2010> 과 한일기독교회의 교류에 관한 한일공동연구 (일한교회교류사 연구로 약칭)’의 제 3년도인 2012년 11월에 열린 심포지엄 ‘1945년 이후의 데모크라시 헌법과 양국교회, 세계정세’에서 발표된 것이다. 한국의 장로회신학대학교와의 협정을 바탕으로 된 것이며, 3년계획의 최종년도이므로, 여기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계획을 확인한다.

1 지명관, 강인덕 교수로 부터의 제안

한일합병 100년의 2010년을 기점으로 ‘한일관계 100년 <1910-2010> 과 한일기독교회의 교류에 관한 한일공동연구’의 계획의 제안은, 종합연구소의 지명관, 강인덕 양 객원교수였다. 2009년 2월의 일이다.

전전(戰前), 전중(戰中), 전후(戰後)와 한일관계에서의 큰 과제를 발견하고, 정치와 문화면에서의 한일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정책을 실현해 온 두 분 교수로 부터의 제안이라는 것에, 이 공동연구의 획기적인 의의가 있다. 지교수가 강조한 것은, 장래를 바라보면서, 한일기독교회의 협력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한일의 연구자가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공동연구를 시작하면 어떠한가라는 것이었다.

2 연구목적, 연구방법, 공동연구그룹

연구목적

공동연구의 목적은, 제 1로 ‘한일의 기독교회사를 1910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파악하는 것이다. 북한, 중국을 시야에 넣고, 북동아시아의 기독교회의 금후의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것이다.

이 100년을 다음의 3기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다.

제 1기 ‘3.1운동과 한일기독교회’

제2기 ‘3.1운동이후의 한일기독교회’

제3기 ‘1945년 전후(前後)의 한일기독교회와 그 이후의 한일관계를 향하여’

제2의 목적은 단지 기독교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의 형성과 기독교, 그리고 북동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을 지향한 한일기독교회’이며, 아울러 북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기독교회의 사명을 밝히는 것이다. 한일합병에 대한 일본기독교회의 입장은, 조합교회등의 입장에 대한 연구가 있지만, 구(舊) 일본기독교회와 기타의 교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교파를 초월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의 한국 민주화의 움직임 가운데서는, 기독교장로회등의 진보적인 교회의 동향과 신학정보가 일본에 전해져 왔지만, 한국기독교회의 다수를 점하는 예수교장로회(통합, 합동)등과 같은 보수적인 교회의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는, 금후의 한일기독교회의 교류를 깊게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불가결한 작업이다.

연구방법

- ①인터뷰조사(일본, 한국). 관계가 있는 교단 또는 교회를 방문해 관계자와 인터뷰조사를 실시한다. 한일의 프로테스탄트교회 가운데 중요한 교회를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한다.
- ②한일의 각각의 교단, 교회의 총회 자료를 조사하고, 각 시기에 한일의 기독교의 교류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를 분석한다. 특히 자료는 한일 쌍방에서 디지털화 해서 보관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③국제심포지엄 개최. 2010년도 이후에 한일의 연구자에 의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연구 성과를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출판한다. 실제로는 ②의 교단, 교회의 총회 자료의 조사가 진행되어, 『한국기독교공보』(1945-1999), 『기독신보』(1915-1937), 『총회자료』(1-16권), 『The Korean Mission Field』(1905-1941)(상기 문헌들은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이 복각)등의 귀중한 자료가 수집되었다. ①은 실시되지 않았다. 약간의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 조사가 실시된 정도다. ③은, 다음 항과 같이 3회 개최되었다.

공동연구 그룹의 구성

장로회신학대학교와 세이가쿠인대학교종합연구소 한일현대사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했다. 필요에 응해서 ‘한신대학교, 성결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의 연구자에게도 참가를 요청했다. 또 일본에서는 도시샤대학등에도 요청했다. 그리고 교회로서는 일본기독교단 타키노가와교회등, 한국에서는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등에 협력을 요청하고, 연구성과의 공개에 관한 협력을 의뢰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것도, 교과 교단을 넘어서 협력을 요청할 것을 지향했지만, 실제로는 확대되지 않았다.

공동연구의 준비

2009년 5월부터 종합연구소 고만송조교수가 장로회신학대학교에 교수 교환으로서 체재하여 이 공동연구의 준비를 시작했다. 또 9월부터 종합연구소 미야모토 사토루부교수가 교수 교환으로서 체재하여 연구의 준비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장로회신학대학교가 이치만씨를 담당으로서 채용할 것을 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연구 활동의 내용과 스케줄을 정했다. 또 이교수는 2010년 3월 말에 일본에 와, 공동연구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3 심포지엄의 개최

이상의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성과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제1회 2011년 2월 1일 세이가쿠인 본부 신관 회의실

주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한일교회교류’

강연1 ‘1910년까지의 일본측에서 본 한일기독교교회교류’

도시샤대학 신학부교수 하라 마코토

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조교수 마츠모토 슈

강연2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측에서 본 한일기독교교회교류’

와세다대학 아시아연구기구 조수 마츠타니 모토가즈

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조교수 고 만송

강연3 ‘한국측에서 본 한일기독교교회교류’

장로회신학대학교 연구교후 이 치만

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부교수 미야모토 사토루

이 심포지엄의 보고는, 마츠모토 슈 “한일교회교류사연구회”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Newsletter』 20-5 (2010) 에 있음.

제2회 2011년 11월 25일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센터

주제 ‘3.1 독립운동과 민족자결주의’

강연1 ‘3.1 운동의 준비과정과 기독교인의 역할’ 이 치만

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교수 마츠타니 요시아키

강연2 ‘1910년대의 한일교회과 리버럴 데모크라시’ 마츠모토 슈

코멘트 장로회신학대학교 박 용권

이 심포지엄의 원고는 『기요』 53호에 수록됨.

제3회 2012년 11월 3일, 세이가쿠인 본부 신관 회의실

주제 ‘1945년이후의 데모크라시 헌법과 양국교회, 세계정세’

강연1 ‘1980년대에서의 남북통일운동을 위한 일본교회의 역할과 기여’ 이 치만

코멘트 세이가쿠인대학 종합연구소 특임교수 히가시노 히사시

발표 ‘한일회담반대운동과 한일교회교류, 1960년대를 중심으로’

고 만송

강연2 ‘1945년 이후의 북동아시아와 교회, 일본국헌법과의 관련으로부터’ 마츠모토 슈

코멘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안 교성

4 연구성과의 공개

본 연구의 성과로서는 이하의 논문이 있다.

고만송, “전후의한국장로파교회와일본기독교단의교류의사정—1967년선교협약에이르기까지의일한교회교류(관계)의역사연구(제1회),” 『聖学院大学総合研究所紀要(세이가쿠인대학종합연구소기요)』 51 (2011).

동, “1970년대한국교회의사회참여에관한신학의고찰—1970년대전반, 일한교

회교류와 관련된 장로파 교회를 중심으로 일한교회교류(관계)의 역사연구(제2회), 『상동』 52 (2011).

동, “한일회담반대운동과 일한교회교류—일한교회교류(관계)의 역사연구(제3회),” 『상동』 53 (2011).

동, “한경직목사의 민주주의관—일한교회교류(관계)의 역사연구(제4회),” 『상동』 55 (2013).

Mansong Ko, “Footprints of Interchurch Exchange between Korea and Japan: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ituation of the Two Countries from 1945 to 1967, the Year of the Mission Agreement,” 『상동』 54 (2013).

——, “Japanese and Korean Church Relations from 1945 to 1967: The Path to Reconciliation,” Atsuyoshi Fujiwara and Brian Byrd eds., *Post-disaster Theology from Japan*, Seigakuin University Press, 2013.